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

모두에게 겸손했던 한암 스님

이번 호부터 한암선사(漢岩, 1876~1951)의 편지를 연재한다. 한암선사는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중흥을 네 번이나 역임했으며, 오대산 상원사 선원에서 27년 동안 거의 두문불출하고 납자지도와 좌선에 매진하셨다. 한암선사의 편지는 약 45통이 남아 있다. 스님들에게 쓴 편지는 순한문체이고, 거사들에게는 국한문체, 보살님들에게는 순 한글로 썼다. 윤창화 대표의 번역과 해설로 선사의 면면 너머 스님의 법향을 편지 속에서 만나본다.

(편집자 주)

한서운(韓瑞雲) 보살님에게

다녀가신 후 지금까지 기력이 강건하시니, 염불 잘 하신다니 반가운 말씀 다 아뢰울 수 없사옵며, 법문 못 들으신 것을 한하시니, 법문은 신심으로 만나보는 것도 법문이고, 선지식이라고 믿고 생각하시는 것이 모두가 법문이요, 재수행통하기를 기도하시는 것도 법문이요, 화두는 별도로 찾으실 것 없이 일상으로 염불하시는 것이 화두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두도 일상, 염불도 일상, 모두가 일상이라야 성취하오니, 온갖 사무 보시는 중에 일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긴단없이 염불하시면 일거양득으로, 세(世) 출세간이 다 구족하게 성취하십시오. 보내신 금액은 잘 받았습니니다. 이곳은 다 무사합니다. 이만 그치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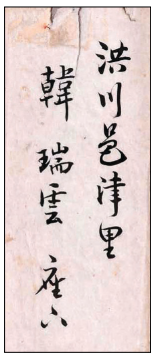
기축(1949년) 삼월 초삼일
산승 한암 사상(담창 올림)

<추신> 보내신 금액은 잘 받았으나 생일은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생일 여부가 있습니까? 너무 황궁 감사합니다. 생축 망축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1949년 3월 3일에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한서운(韓瑞雲) 보살에게 보낸 편지이다. 법문은 일여행(一如行)인데, 아마도 홍천 지역에서는 가장 신심 있는 보살님이었던 것 같다.

한암(漢岩)선사는 경봉선사 등 스님들과 왕래한 편지에서는 100% 한문을 사용했으나 여성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 한글 편지이다. 아무래도 보살님들은 한문 독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글 편지가 아주 단아하고 예술적이다. 당시 한암선사는 오대산 상원사에 계실 때였고, 입적(1951년)하기 2년 전으로 74세였다.

<편지의 법문> : 한서운 보살이 정월 해제 때 상원사에 왔었으나 대승공양 준비 등으로 바빠서 미처 한암선사의 해제 법문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한서운 보살이 그것을 한탄하자 한암선사는 법문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심으로 상원사에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법문이고, (나를) 선지식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도 법문이고, 재수행통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법문이고, 모두가 법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라하셨다.

그리고 화두는 별도로 찾을 것 없이 일상으로 염불하는 것이 화두와 다르지 않으니 화두도 일상, 염불도 일상, 모두가 일상이라야 성취된다고 일러주신다. 이 역시 한 편의 법문이다.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자로 써야 할 것도 모두 한글로 쓰셨다. 예컨대 편지 끝에 '산승 한암 사상'에서 '사상'은 한자 '謝上'으로 '올림'이다.

<추신>에서 '진과 여히 성심거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히'는 한자 '如히'이다. 이와 같이 한자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으셨다.

<추신>에서 "생일은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생일 여부가 있습니까? 너무 황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암선사의 생일은 음력 3월 27일이고, 이 편지를 보낸 날자는 3월3일이다.

아마 한서운 보살님이 한암선사에게 편지를 보내 곧 다가올 큰스님 생신을 걱정할 모양이다. 당시에는 남한에도 좌우익이 대립하여 도시는 물론 산 속 오대산에도 분위기가 흉흉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였다. 한암선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생일은 무슨 생일잔치를 하느냐고 기겁하고 있다.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황궁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편지 내용에서도, 그리고 추신에서도 너무 겸손한 모습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알려진 '호법신장' ... '나눔'도 눈길 설법 등 남다른 문서포교 열정 20년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 원장·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하면 중단 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활발한 문서포교 활동을 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스님은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이자 설법연구원 원장으로서 유익한 불교문화집 외에 <불설법전서> 등을 출간해 대중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다. 승가대 재학시절에는 매주 일요일 MBC전파를 탄 조용기 목사의 선교 방송을 중단시켰고, 육군 제17사단 훼손사건을 일단락 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불교계 '호법신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한 이후에는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를 통해 종단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사비를 들여 출판 일을 멈추지 않는 스님은 조금씩 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불교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해온 동출 스님은 "대외적인 활동만 있었지 수행자로서 자기 수행에는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쉬울 뿐"이라고 회고했다.

불교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

경주 출신인 동출 스님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에 전념했다. 도반들과 함께 불교공부와 수행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출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가 후 1985년, 법주사 강원 학인시절은 <법회와 설법>의 전신격인 <월간 법회>지를 처음 접했다. 설법문안을 소개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각종 법회에서 설법을 해야 하는 스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스님들과 포교사를 위한 일종의 텍스트북으로 광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법 스님들이 포교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이 문서포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월간 법회>는 설법문안 외에도 진보 논객들의 시론을 자유롭게 싣고, 1987년 해인사 전국승려대회 현장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등 동출 스님이 세간과 출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도구가 됐다. 하지만 동출 스님이 강원을 졸업할 무렵 폐간되고 말았다.

스님은 이후 인연을 따라 현 정토회의 전신인 중앙불교교육원에서 <월간 정토> 주간을 맡아 3년간 일했다. 물심양면으로 <월간 정토> 발행에 신경을 썼고, 불교 행사장에 갈 때면 배낭에 200권씩 넣어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문서포교에 대한 관심은 중앙승가대에 입학해 승가대 신문사 활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인 스님(전 조계종 교육부장), 초격 스님, 한복 스님 등과 같이 승가대 신문사를 이끌며 총무원과 승가대를 비판·견제하는 논조를 유지했다.

스님은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예코 붓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불교사회교육원에서 한국불교사회교육원 기획 실장을 맡으면서 청년불자 의식을 전환하는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승가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스님은 사회개혁기였던

1990년대 초, 학생회 주최로 환경, 통일, 복지,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어 학인 스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인 재발견운동 일환으로 매달 선정해온 '이달의 문화인물'에 일연 스님이 선정되면서 불교계는 삼국유사 특별기획전과 특별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때 동출 스님은 화주를 자처해 학인 스님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기금 모연 활동을 전개했다.

그렇게 신바람 나게 학교일을 도맡아 하던 중 불교계 전체가 격분할 일이 발생했다. MBC문화방송에서 조용기 목사가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8개 지역방송을 통해 짝게는 2년 길게는 13년간 선교방송을 해온 것이다. 심지어

<불교설법전서>·불교만화 등 문서포교

조용기 목사 MBC 선교방송 중단 시키고

17사단 훼손사건 일단락...불교계 '호법신장'

불교활동가상 제정 10년간 27명 지원

MBC라디오에서는 30년간이나 선교방송을 해왔다. 지금까지 공중과 방송의 종교편향 편파방송이 제재를 받지만, 당시에는 종교편향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돼도 묵과되던 상황이었다.

동출 스님은 1992년 전국승가대학 학인연합회와 공정방송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MBC 조용기목사 선교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영주 관음사故도기 스님,故김재일 보리방송 모니터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등 사부대중과 규탄대회를 열고 이들과 함께 부산, 광주, 청주 등 18개 지역 MBC 방송사를 찾아가 방송중단 각서를 받아냄으로써 선교방송을 중단 시켰다.

좀 잠잠해지기가 싫더니 17사단 군부대에서는 대대장



동출 스님은 기금을 마련해 10년간 불교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불교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파묻는 훼손사건이 발생했다. 전국 승가대 및 사암연합회 등을 비롯한 불교단체는 교권수호협회를 구성하고 1993년 4월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계의 법회'를 열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여기서 동출 스님은 규탄연설을 맡았다. 그 결과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이후 1994년 동출 스님은 영남 스님과 교권수호협회를 '정법연구원 불교도협의회'로 개칭하고 '상무대 비리관련 80억 불사대금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다 같은 해 종단개혁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개혁회의 홍보차장, 2005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하고, 이후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를 통해 종단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월간 <설법> 등 문서포교에 전념

동출 스님이 문서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승가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설법연구원을 운영하던 오현 스님이 입적하면서 설법연구원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고, 이어서 운영을 맡은 제주 법화사 시몽 스님과 인연으로 소임을 맡게 된 것이다. 현재 스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솔바람은 1989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출판 사업에 뛰어들지는 2001년 1996년 부터였다.

설법연구원은 설법문안 연구와 함께 다양한 문서포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운영자 부재로 <불교설법전서>는 3권까지만 발행되고 완간이 미뤄지던 상황이었다.

강원 학인 시절 많은 스님들에게 포교자료로서 도움이 됐던 <월간 법회>가 폐간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동출 스님은 <불교설법전서> 10권을 완간했다.

매월 <설법>을 펴내는 스님은 "설법문안을 만들어 전국 1000여개 사찰에 배포하고 나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실 것만 고맙다'는 연락을 받을 때면 피로가 잊혀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기존에 시리르로 출간되던 <전통사찰총서> 완간을 목표로 삼았다. 19, 20, 21권과 증보판 1, 2권 등 모두 5권을 출간하면서 직접 마무리했다.

그러나 불교서적을 발행하다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판매량이 100여권을 넘기기 어려운 것을 예상하면서도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출 스님은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불교와 종단의 발전에 기여할 내용이라면 반드시 출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불교지도자론>처럼 꼭 필요하지만 출판사에



참어불교재단에서 열린 '승단의 법계원인(문제점)과 근절방안' 공청회에서 동출 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습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흙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인 사단법인인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대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는 명의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동출 스님은 ... 1982년 삼각사 삼천사 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와 인천 용화사, 봉암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했다. 1988년 법주사 강원에서 수학 후 1994년에 중앙승가대를 졸업, 2002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월간 정도> 주간을 거쳐 중앙승가대 신문기자과 학생회장, 한국 불교사회교육원 기획실장,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이사,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집행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 불교 TV 자문위원,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실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설법연구원 원장으로 월간 <설법> 출간과 더불어 솔바람 출판사를 운영하며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wanhollo@hyunbul.com

서 만들기는 꺼리는 책을 내야 할 사명이 불교출판사에 있다고 생각해 저자들에게 6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발행을 강행했다.

두 번째는 대중포교를 위해 불교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스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불교만화 제작을 위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작가들에게 천만원에 달하는 선인세를 지급하며 제작에 뛰어들었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안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 비주얼이 있는 만화를 통해 불교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부터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갈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매진했다. 그 결과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를 비롯해 <마음 밝을 일구는 사람들> <백유경> <아담법석> <자타가> 등 10년 동안 17권을 펴냈다. 두 권으로 펴낸 <생각나무>는 2012

년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점을 통해 구매하는 독자들은 극소수였고, 사찰에서 포교용으로 대량 구매할 덕분에 겨우 제작비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스님은 2009년 대불련 총동문회와 협력해 군법당 50여 곳에 1000여권의 불서를 보급한 것을 시점으로 2010년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청소년 법회, 군법당, 교도소, 병원법당에 3000여권의 불교 만화책을 보급했다.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2009년 스님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지금은 신장을 이식해 건강을 되찾았지만 당시에는 후회야 밀려왔다.

“그때 투병 하면서 출가한 지 30년이 다 되도록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나더러 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수행도 전혀 안 돼 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안 됐거든요. 몸이 법당인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투병 중에도 문서포교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단(丹)>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가 김정민씨와 <만화로 보는 인류이야기> <만화로 보는 서양미술사> 등 명쾌한 만화로 유명한 만화가 최병용씨의 합작으로 <만화불교이야기> 전5권을 완간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쉽고 재미있는 만화지만 어른이 봐도 손색없는 ‘만화 교리 입문서’다.

책을 통해서 올바른 불교를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한 결과, 설법연구원과 솔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법화경> 등 만화책을 펴냈으며,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나 절판됐던 탁남한 스님의 <살아계신 부처, 살아계신 예수>를 발간했다. 20년 동안 70여 권의 책이 동출 스님의 손을 거쳐 발간됐다.

청정승가를 위한 불서 계획 중

스님은 선방 해제비, 보시금, 장학금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2001년부터 불교활동가상을 제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온 불교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딱 10회만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총 27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한 뒤 지난 해 말 회향했다.

“항상 불교가 재가불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 복지, 국제구호 이주단 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너무 고마워 상을 제정하게 됐어요. 더 챙기고 싶은 활동가들이 많았지만 모두 챙겨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출 스님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불교만화서적을 10여 권을 더 발간해 30권을 채울 계획이다. 또한 탁남한 스님의 책 가운데 불교사상을 알릴 수 있는 책을 번역해 발간하는 꿈도 갖고 있다.

“제가 본 승가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탁남한 스님의 플럼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남녀와 승속 모두가 평등하면서도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생기면 공동자산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님들이 사심(私心)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한국 불교에는 어떤가요. 스님들이 진정으로 불교와 중단을 생각하기 보다는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승가는 재가자와 사회로부터 불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탁남한 스님의 저서 중에는 대중성은 없지만 이러한 청정승가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발간해 멀리서나마 흠모하면서 그 가르침과 사상을 한국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법일기

문자 인연으로 맺어진 불연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법회를 하면서 많은 훈련병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때로는 형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훈련병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여자 친구는 잘 지내는지, 또 자신은 잘 지내는지 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의 소식을 잘 지내고 있다고 개별적으로 문자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가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배석호 훈련병 여자 친구인데요, 석호 잘 있나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훈련병의 안부를 묻는 전화라니, 무척 난감했습니다. 여러 명의 안부를 전해주었기에 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만 아가씨의 남자친구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교대 법회 때 그 훈련병을 찾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입대 전에도 배 훈련병에 대해 주변의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배 훈련병은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며 바로 입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여자 친구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아가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 훈련병의 소식을 그 아가씨에게 전해주고, 그 아가씨의 소식과 가족들의 소식을 배 훈련병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있었습니까. 소식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 훈련병은 법회에서 더욱 열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전방에서 복무하던, 이제는 상병이 된 배석호 훈련병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불자가 됐으며 전방의 법당에 매주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자 그는 다소 화가 난 듯 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법사님, 법사님 덕분에 제가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는 부처님 법을 접하기가 너무 힘들습니다.”

배 상병은 전방에 법당을 만들어 놔면 간식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법회도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안 사실이지만 그 전방 법당을 담당하던 민간인 성직자께서 바쁜 일이 있어 3주 연속 법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전방 법당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배 상병은 자신에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법회를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하더군요.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만큼은 꼭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렵던 시절이라 음료수는 업무를 못 내고 초코파이를 보냈습니다.

배 상병이 법회를 관리한 이후로 저에게는 매주 법회인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취사반 인원과 초소 근무자, 휴가자 등을 제외하면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법회에 매주 15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일반 장병이 주관하는 법회로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초코파이(당시에는 한 달에 200박스 정도를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왓지



그림·박구원

만, 군중장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장병이 알아서 잘하니 기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부대 대대장이 전화를 해서 배 상병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회를 잘 진행할뿐더러 병사들 상담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병 때 그 절실했던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장병들의 마음을 다독여 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배 상병은 부대에서 마음이 맞는 불자 장병들을 모아 모금을 해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진행했습니다.

힘들었던 훈련병 시절,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을 불자로 만들고, 또 그들이 다른 불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니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배 상병은 이후 제가 그 부대를 떠나고 두 달쯤 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연락이 뜸하지만 어디에선가 불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정행이익수 군송법사 (육군학예연구소 학예사 주지)



동출 스님은 20년간 어린이·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유익한 불교만화 17권과 70여 권의 불서를 펴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영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증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형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65-2462 हे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사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조계종총연합회 회장 · 동아일보신문사 사장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 문 석홍섭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의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장 석병경
원로회장 석무공	부회장 석무경	부 의 장 석철오			

총무원	호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원장 석승암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장 석석산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장 석해광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범담	사회부장 석해주	부원장 석범호	기획원장 석우암
					부원장 석범승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훗소리, 짚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명식식등, 천도재,
 - 전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 등 범패의 모든 것)
-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